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해명자료</h1>	2015. 10. 21(수)	
		작 성 문 의	국무조정실 인사과장 김진곤 인사팀장 김기출 (Tel. 044-200-2798)
<p>즉시 사용</p>			

○ 10.21(수) 한국경제신문은

“조세심판원 또...심판관에 비전문가 임명“이라는 제목으로,

- 이번에 세제경험이 부족한 행자부출신 J과장을 상임심판관으로 임명
 - * J과장은 지방세분석과장을 맡으면서 대부분 ‘도로명 주소사업’에 매진
- 지난번에도 비전문가 총리실출신 S심판관을 임명
- 후임 조세심판원장에 총리실출신 비전문가가 임명된다는 소문 등을 보도

□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은 내국세, 관세, 지방세 등 관련분야의 **법정요건***을 충족하는 전문가들을 상임심판관으로 임용하고 있으며, 상기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함

* 조세에 관한 사무에 3년이상 근무한 공무원(4급이상의 경우), 변호사·관세사 등 6년이상 재직한 사람, 법률학 등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등

① ‘이번에 세제경험이 부족한 행자부출신 J과장을 상임심판관으로 임명’ 관련

⇒ 보도에서 언급한 J과장은 ‘지방세분석과장’과 ‘지방세운영과장’을 역임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임

⇒ 同 인물은 지방세분석과장 재임시, 지역자원시설세 제도운영, 지방세 추이 분석, 위택스 운영 등 다양한 지방세업무를 수행*한 바,

- '대부분 도로명 주소사업에만 매진했다'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님

* 지방세분석과장 관장 업무 : 지역자원시설세 제도운영, 지방세 추이 분석, 위택스(WETAX : 지방세 납부시스템) 운영, 도로명 주소사업 등

② '지난번에도 비전문가 총리실출신 S심판관을 임명' 관련

⇒ 관세청 및 총리실의 감사·조사·평가경험 전문가를 상임심판관으로 임명한 바 있음

③ '후임 조세심판원장에 총리실출신 비전문가가 임명된다는 소문' 관련

⇒ 사실이 아님